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3 APRIL
Vol.243

초거대 AI 시대!
변화를 넘어 혁명으로



오픈AI의 인공지능 화가 DALL·E 2가 그린 일러스트

DALL·E 2 generate keyword: an astronaut lounging in a tropical resort in space, vaporwave

삼성 KPMG



변화의 물결을 넘어 혁신의 파트너로!

초거대 AI 시대

최근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논문, 편지, 시, 소설 등을 짧은 시간 내에 써내고, 엔지니어가 풀기 힘든 복잡한 코딩 문제도 해결해줍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인공지능 화가가 단숨에 새로운 일러스트를 창조해냅니다.

4월호 'Channel' 표지는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이미지입니다.

바야흐로 초거대 AI 시대입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의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 종합적인 추론이 가능한 차세대 AI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요즘,
삼정KPMG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넘어
혁신을 이끄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챗GPT가 촉발한
초거대 AI 비즈니스 혁신

08 Team Story

실력과 국제조세 전문가가 뭉쳤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

10 Client+

글로벌 Steel & Coil 전문기업
신스틸

12 Expert's Advice

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이?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16 People First

생활 속 즐거움과 재미 찾기
'제2회 챔피언십' 대회추진위원을 만나다!

18 삼성인톡

초거대 AI 시대,
AI 플랫폼 어디까지 활용해봤니?

20 삼성동호회자랑

승부는 9회 말 2아웃부터!
끈기와 열정으로 하나된 야구 동호회

22 KPMG Story

Purpose를 향해 달려가는
삼성인의 롤모델은 누구?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Back to the Basic (B2B)

26 Theme Interview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이벤트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Together Campaign'

28 心 Care

회복의 첫 단계, 신체적 회복의 핵심
마음이 어렵다면 몸부터

30 Samjong News

'Vision 2025' 실현 위해
법인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外



04



08



20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 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챗GPT가 촉발한 초거대 AI 비즈니스 혁신

2023년 혁신의 파도가 몰고 온 거대 키워드 ‘챗GPT’를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AI(인공지능)는 가속도를 내며 진화하여 연일 새로움과 놀라움을 선사한다. 챗GPT가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가운데, ‘챗GPT로 인해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챗GPT와 초거대 AI, 생성형 AI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기업 부서별 변화 방향성을 점검해본다. 아울러 기업 C-Level이 주안점을 뒀어야 할 AI 관리 방안 즉,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언하며 본격적 AI 시대의 개막 준비에 기여하고자 한다.



챗GPT 및 초거대 AI 정의



초거대 AI가 무엇인가요?



초거대 AI는 AI 언어모델로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챗GPT는 무엇인가요?



저는 OpenAI가 만든 대규모 언어모델입니다.

Source: OpenAI

Note: 챗GPT와 대화를 하여 얻은 정의

해외 주요 생성형 AI 기업

분류	기업명	서비스명	국가	내용
텍스트	OpenAI	ChatGPT	미국	초거대 언어 AI 모델 GPT를 바탕으로 만든 AI 챗봇
	Google	Bard	미국	초거대 언어모델 LaMDA를 바탕으로 만든 대화형 AI
	Deepmind	Sparrow	영국	딥마인드의 언어모델 친칠라를 기반으로 한 AI 챗봇
	Jasper	Jasper	미국	마케팅 목적의 블로그 기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및 광고 문구 등을 생성하는 AI 툴
	Baidu	Ernie Bot	중국	'지식 통합을 통한 향상된 표현'이라는 의미의 자체 개발 AI 챗봇
이미지	OpenAI	DALL·E	미국	명령어(Prompt)에 따른 이미지 생성
	Stability AI	Stability Diffusion	영국	이미지 생성 AI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Midjourney	Midjourney	미국	이미지 생성 AI로, 해당 툴을 사용하여 생성한 작품이 미국의 한 미술 대회에서 1위로 선정되어 화제가 됨
음성	Google	MusicLM	미국	문자 설명을 음악으로 만드는 생성 AI
	OpenAI	Jukebox	미국	원하는 장르, 가수 스타일로 음악을 생성하는 AI 기술
영상	Google	Imagen Video	미국	최대 초당 24프레임, 1280×768 해상도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비디오 AI 생성 툴
	Meta	Make a video	미국	텍스트 입력 시 동영상 생성해주는 Text to Video 모델

Source: 각사,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챗GPT의 등장,

생성형 AI 및 초거대 AI 정의는?

챗GPT의 GPT는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뜻한다.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 '오픈AI(OpenAI)'가 2022년 11월 말 챗GPT를 선보이면서, 전 세계적 파장을 가져왔지만 사실 GPT는 오픈AI의 전유물은 아니다.

챗GPT의 근간이 되는 GPT 모델이 무엇인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이다. 구글의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모델로, 다음에 오는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며 맞추는 방식이다. 문장의 생성을 위한 최적화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언어 생성 모델'로 부르고 있다.

챗GPT와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인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기존 대규모 데이터의 패턴을 자기지도 학습하여 명령어(Prompt)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 영상, 음

악, 텍스트, 코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알아야 할 용어인 '초거대 AI'는 초거대라는 말처럼 'AI 언어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챗GPT로 살펴보는 GPT 역사...

GPT-1부터 GPT-4 중

'챗GPT는 3.5 버전'

챗GPT가 비즈니스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챗GPT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GPT의 발전 역사를 살펴 봐야 한다. 챗GPT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다. 버전1로 탄생하여 진화를 거듭하다가 GPT-3.5 버전에 해당하는 챗GPT가 특히 전 세계에 초강력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세상을 바꿔버린 기업으로 부상한 오픈AI는 2018년 GPT-1을 출시한 후, 순차적으로 후속 버전을 내놓았다. 오픈AI가 GPT-3을 공개한 후에는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로 이른바 'AI 화가'라

고 불리는 '달리(DALL·E)'를 출시했다. 이어 2022년 11월 30일 GPT-3.5에 해당되는 챗GPT를 출시한 후 단 5일 만에 이용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세웠던 100만 가입자 돌파 시기를 압도적으로 단축했다.

챗GPT의 GPT-3.5 모델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 무엇보다 우수한 성능이었으며, 챗GPT 출시 초기에 모든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는 것, 인간이 태생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대화형으로 설계했다는 것도 큰 반향의 비결이 됐다. 챗GPT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대화와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답을 하도록, 오픈AI는 GPT-3.5에 3단계의 훈련 과정을 활용한 강화학습을 적용해 추출되는 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였다. 이어 오픈AI는 2023년 3월 이미지·음성 데이터를 인식하는 GPT-4를 출시하기에 이르며, 버전을 거듭할 때마다 적용 범위를 넓혀 생성형 AI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오픈AI의 GPT 모델 발전사



자연어처리 모델 '트랜스포머' 공개

2017년

GPT-1 OpenAI

파라미터 수	1억 1,700만 개
학습 데이터 크기	4.5 GB (7,000권의 책 분량)
주요 특징	·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언어모델 · 일부 주제 분류 및 기본적 분석 가능

2018년

GPT-2 OpenAI

파라미터 수	15억 개
학습 데이터 크기	40 GB (800만 개의 문서와 4,500만 개의 웹페이지 자료 학습)
주요 특징	· 전과정을 비지도 학습으로 구성하여 대용량 데이터 학습 가능

2019년

GPT-3 OpenAI

파라미터 수	1,750억 개
학습 데이터 크기	570 GB
주요 특징	· 사람이 쓰는 수준의 글을 쓰도록 성능 진화 · 텍스트 요약뿐 아니라, 코딩, 번역 등의 다양한 일을 수행하여 범용성 증대

2020년

2021년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DALL·E' 출시

Source: Open AI,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초거대 AI의 주목 받는 플레이어... 글로벌·국내 기업 개발 현황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여러 분야의 생성형 AI를 앞다투어 개발·출시 중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과 통신사가 자체 파운데이션(기반) 모델을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국내 다수 스타트업 또한 국내외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다수 출시 중이다. 여러 기업에서 선보이는 AI 시스템의 유사점·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것이 2023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초거대 AI가 불러올 기업 부서·Function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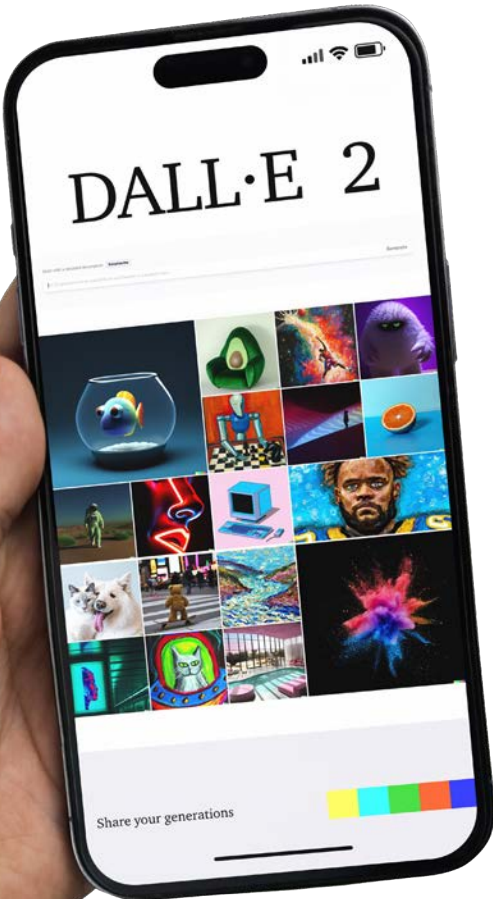
AI 도입으로 기업에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D&A(Data & Analytics) 시대 속 데이터가 초거대 AI와 융합되며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이 예상된다. 산업의 진화와 함께 기업의 부서별 변화 방향성을 살펴보면,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거세게 미치는 부서로 먼저 '마케팅·영업'을 꼽을 수 있다. 광고 카피라이팅 문구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인간 카피라이터가 1안부터 50안, 때로는 100안까지 수십 개의 광고 문구 가안을 고심하며 직접 만든 후 최종 선택

을 했다. 반면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다채로운 가안을 챗GPT와 같은 툴이 만들어준 후 그 안에서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려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게 된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를 생성할 때와, 시장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 추천·가격 설정 등 세일즈 전략을 세울 때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업의 인사(HR) 부서는 생성형 AI 기술 도입을 통해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인적 자원의 역량 분석·개발을 고도화할 수 있다. 법률·컴플라이언스 부서는 AI를 통한 법적 문서 작성, 규제 준수 모니터링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게 된다. R&D(연구·개발) 부서는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개발 부담이 줄어드는 노코드(No code), 로코드(Low code) 트렌드에 힘입어 개발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다. 물류·유통 부문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재고 관리 및 발주·유통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된 경로 설정 및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Level 어젠다 ...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거버넌스' 구축

AI의 급격한 확산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C-Level은 AI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측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AI의 잠재적 리스크로는,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를 꼽을



AI
GENERATIVE AI

GPT-3.5

GPT-3 기반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기능 추가

파라미터 수	미공개
학습 데이터 크기	미공개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T-3 대비 인식 및 추론 능력이 향상 · 창의성 및 문제 해결 능력 강화 · 시각, 청각 등 텍스트 외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습득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가능 탑재

GPT-4
OpenAI

2022년

챗GPT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ChatGPT' 출시, 3차원 이미지 구현
기능 등을 강화한 'DALL·E 2' 출시

2023년

GPT-4 기반

'ChatGPT Plus' 출시

수 있다. 또한 학습 데이터 기준의 부재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AI 모델이 도출한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는가?'부터 'AI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가 존재하는가?', 'AI 판단 결과를 어떻게 고객이나 규제 당국에 이해시킬 수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AI 도입에 따른 주요 질문(Key Questions)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질문을 만드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과 R&R(역할·책임), 프로세스와 모형 검증 측면에서 AI를 관리하는 'AI 거버넌스' 방안 수립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AI 거버넌스 원칙에 기반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 또한 설계해야 한다.

AI 관련 법·제도도 회사 내부 규정의 검토와 함께 AI 규정·지침 수립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며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AI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AI 위원회, 전담 조직 등 신규 조직 구성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 확대 가능한 조직 구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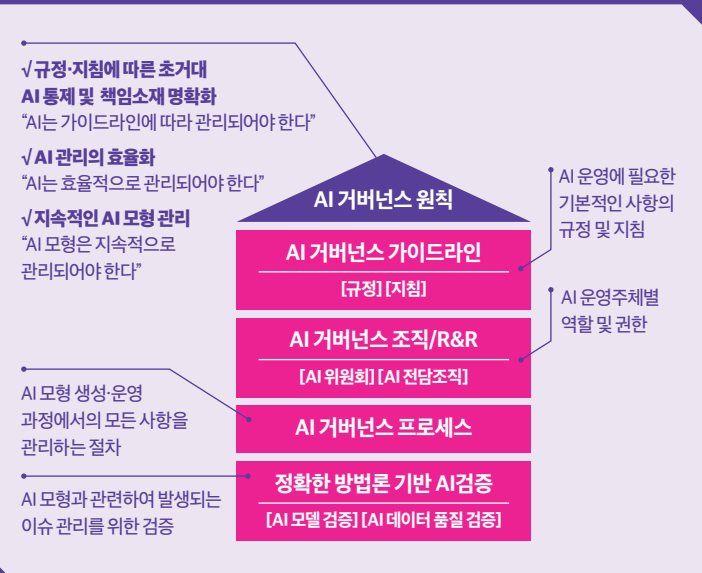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형상수(兵形象水)'라는 말이 주효한 2023년, 흐르는 물처럼 주변 형세에 따라 기업 또한 시시각각 변화해야 선제적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기업 부서별 AI 활용 방안

	AI 활용 전망 및 예상 변화	관련 사례
경영지원	[인사] · 채용 프로세스 자동화 · AI 기반 직원 역량 분석 및 개발 [법률/컴플라이언스] · 법적 문서 검토 및 작성 · 규제 준수 모니터링 및 관련 보고서 작성	- HireVue(미국) - Mya Systems(독일) - Textio(미국) - Eightfold AI(미국) - ROSS Intelligence(미국) - Compliance.ai(미국) - LawGeex(이스라엘)
연구개발(R&D)	· 노코드(No code), 로코드(Low code) · 트렌드 확대로 개발 효율성 증진 · 생성형 AI를 통한 신소재 개발	- 오픈AI 'Codex' - 딥마인드 '알파코드' - Generate Biomedicines(미국) - Chroma
생산·품질 관리	· AI 기술을 통한 제조 공정 효율화 · 품질 관리	- 가우스랩(한국) 'Panoptes VM' - 구글 클라우드(미국) 'Visual Inspection AI solution'
물류·유통	· 물류·유통 프로세스 자동화 · 재고 관리	- 신세계아이앤씨 'SAIcast' - 월마트(미국) 'Pactum AI' - 쿠팡 'AI 비서'
마케팅	· 마케팅 프로세스 자동화 ·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 생성	- Copy.ai(미국) - CJ 'AI 카피라이터' - 현대백화점 '루이스'
영업	· 대규모 데이터 기반 영업 전략 고도화 · 맞춤형 제품 추천 및 가격 설정	- 세일즈포스(미국) '아인슈타인 GPT' - 아마존(미국)
고객 서비스	· AI 챗봇, 가상 비서 등을 통한 사공간 제약 없는 고객 서비스 · 고객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네이버 '클로바 라이브챗' - KT의 AICC - LG CNS의 AICC

Source: 각사, SamjongKPMG 경제연구팀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Source: SamjongKPMG 디지털본부

CONTACT US

디지털본부장 조재박 부대표
Tel. 02-2112-7514 E-mail. jaeparkjo@kr.kpmg.com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Tel. 02-2112-6744 E-mail. hyojunglee@kr.kpmg.com



실력과 국제조세 전문가가 뭉쳤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37개국이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 대응책 마련을 위해 삼정KPMG 조세 전문가들이 뭉쳤다. Tax3본부와 Tax6본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 서비스

- ①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업무
- ② 필라2로 인한 추가세액 (Top-Up Tax) 최소화 자문 업무
- ③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 컨설팅 업무
- ④ 필라2 도입으로 발생될 잠재적 세무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 업무
- ⑤ 필라2 도입에 따른 회계 공시 관련 자문 업무



Tax3본부와 Tax6본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韓, OECD 회원국 중 최초
필라2 법제화해
2023년까지 영향 분석 및
대응책 마련해야**

지난 2021년 디지털세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Model Rules)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2의 핵심은 연 매출액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특정 자회사가 소득을 낸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 세율(15%)에 못 미치는 세금을 냈다면, 그 미달분을 모기업(본사) 관할국에서 따로 거두는 것이다.

한국은 G20 및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법안을 법제화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조세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복잡한 세제상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모든 대상 기업들은 필라2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액을 적절히 공시하기 위해 최소한 2023년 말까지 필라2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을 완료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하나의 연결 그룹 내에 여러 중간 모기업 및 공동기업(JV)이 존재하는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효세율은 개별 구성기업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국가 내에 소재하는 다수의 구성 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통합 계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업은 조기에 영향 분석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하고,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국가 있다면, 보다 깊이 있는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

**업계 최초 필라2 솔루션 Tool 개발,
실질적 솔루션 제공할 수 있어**

삼정KPMG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대응팀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Know-how)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내에서 국제조세 전문가를 선발해 필라2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새로운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잠재적인 대상 기업을 선제적(Proactive)으로 방문해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필라2 대응팀은 최고의 인력(Manpower)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PMG Global의 필라2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라2에 대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KPMG는 업계 최초로 필라2 도입을 대비해 정확한 필라2 추가세액 계산 및 여러 시나리오의 비교를 가능케 하는 BEPS 2.0 Modeling Tool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KPMG는 기존의 회계보고 및 세무신고 절차와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필라2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KPMG BEPS 2.0 Automation Technology (KBAT)를 개발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게임 체인저로서
필라2 시장 주도할 것!**

삼정KPMG 필라2 대응팀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 향후 필라2 Market을 주도하기 위해서 심 없이 달려가고 있다. 필라2의 특성상 해외 KPMG 멤버 펌,

고객의 해외 구성 기업 및 그 자문사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삼정KPMG 필라2 대응팀은 KPMG Global 필라2 대응팀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전 세계에서 축적되는 필라2에 대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각 기업들의 상황에 맞춰 신속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모든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의
각오 한마디**

오상범 부대표
sangbumoh
@kr.kpmg.com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는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고자 마련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이를 법제화하여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많은 준비와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정KPMG는 내로라하는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하나를 모여, 기업들의 필라2 대응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솔한 경험과 노하우로, 기업들의 모든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길원 부대표
gilwonkang
@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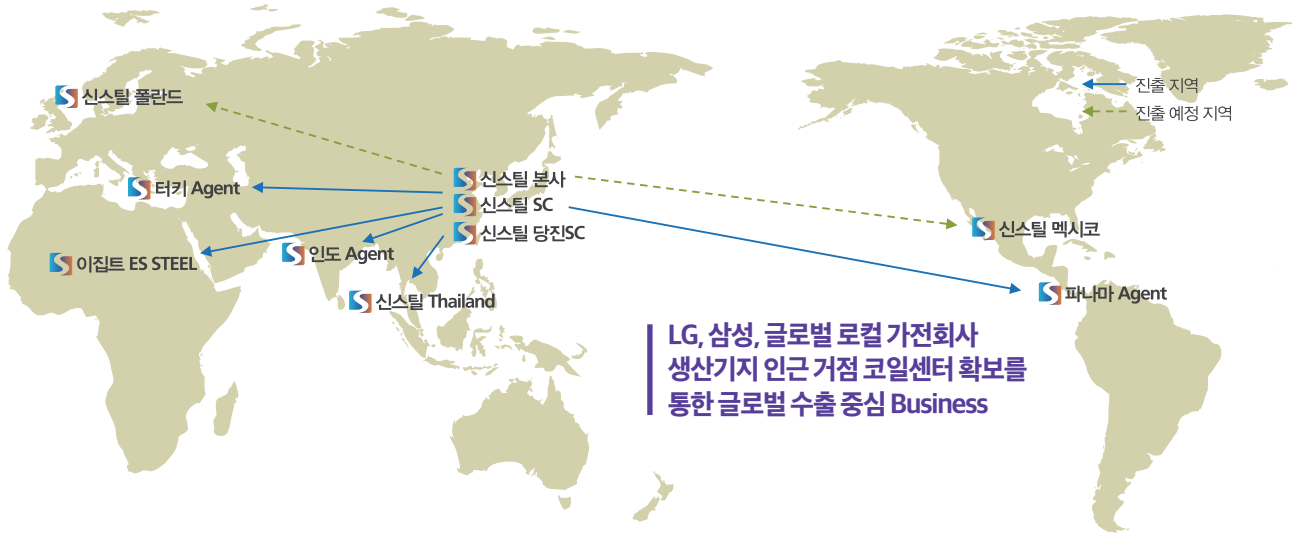
“KPMG는 업계 최초로 필라2 추가세액 계산 및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도록 BEPS 2.0 Modeling Tool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대응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KPMG Global의 필라2 대응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솔루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글로벌 Steel & Coil 전문기업 신스틸

신스틸은 '화려하고 규모만 큰 회사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회사가 되자'는 일념 하에 2005년 4월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강판류 및 기타 철강재의 가공 및 유통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철강사업부문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스팩(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합병 상장 이후 철강 업계 숨은 실력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스틸을 만나본다.



1. 부산에 위치한 신스틸 회사 전경 모습 2. 신스틸은 제조사 규격화된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규격으로 가공한다 3. 신스틸 공장 근로자의 작업 모습



설립 이후 지속성장을 이어와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매출 성장

신스틸은 지난 2005년 설립된 철강재 가공 및 유통 기업으로, 업계에서는 코일센터라 불린다. 코일센터는 출하하는 강판을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주는 센터를 의미한다. 신스틸의 주력 생산품은 아연도금강판 및 컬러강판 등이다. 특히 컬러강판은 색깔·무늬·질감을 입힌 고부가가치 강판으로 주로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활용되거나 고급 건축 내·외장재로도 쓰인다. 신스틸은 컬러강판을 기반으로 하는 가전제품 시장을 비롯해 자동차·조선·건축 분야까지 전방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신스틸은 지난 2019년 하나금융14호스팩과의 합병 상장을 통해 증시 입성을 시도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상장을 한 차례 철회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2년 12월 하나금융15호스팩과 합병하고 12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신스틸은 합병 상장을 통해 조달한 100억 원을 컬러 강판을 가공하는 부산 제2공장 설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신스틸은 안정적인 고객사를 통해 견고한 실적으로 지속 성장이 이어오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5% 꾸준한

매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은 34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38억 원으로 469% 늘었다. 지난 2022년 상반기까지는 매출액 2110억 원, 영업이익 118억 원을 달성했다.

세계로 향하다!

유통부터 보관 및 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목표

창업자 신승곤 대표는 철강 제조업체인 진양금속에서의 영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스틸을 설립했다. 창업 2년 뒤인 2007년부터 신스틸은 LG전자 브라질과 베트남·태국·터키·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제품을 수출했다. 2008년에는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대제철·포스코 C&C과 거래를 등록했다. 현재 신스틸은 삼성전자·LG전자와 일본의 히타치·도시바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강판 가공 및 유통 분야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태국에도 공장을 세웠다. 최근에는 이집트 현지 최대 가전업체인 엘아라비(EL-ARABY)와도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16년 만인 지난해 '제58회 무역의 날'에서 1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스틸은 해외 신시장 진출과

해외 고객사 기반을 넓히고, 향후 철강재의 유통부터 보관 및 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2~3년 내에는 멕시코에 거점을 마련하고 북미·중남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고객 성공 최우선하며

글로벌 철강 강소기업으로 나아갈 것

신스틸은 현재 그룹사 기준 총 196명(2022.06)이 재직 중이다. 신스틸은 전 영업자들이 공장 근로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제품 가공 및 출고 이전 검수를 통한 품질을 체크하고, 신규 제품 개발 시 고객사의 품질 부분의 피드백을 수렴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품질 향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철강의 유통 구조를 최소화하여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영업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늘 고객의 입장에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스틸은 글로벌 철강 강소기업을 목표로 철강 전문 지식을 배양하고, 글로벌 신규 고객 발굴에 회사의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객의 성공을 위해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원칙을 고수하며 글로벌 Steel & Coil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이?

지난 2022년 11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EU에서는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하며, 한국의 EU 현지 법인도 이 규제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이 우리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고, 대응책을 들어보려 한다.

Q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승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해 11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최종 승인했고, CSRD와 함께 실무적인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최종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제 CSRD를 중심으로 ESRS, EU 택소노미(Taxonomy), 지속가능경영 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로 연계되는 강력한 EU 그린 딜 공시정책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CSRD에 따르면 EU 기업들은 우선 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큰 그룹(Other large EU companies)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한국의 EU 현지 법인들 이 많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언론도 CSRD 확정을 신속하게 보도했으나, 우리보다 ESG 정책이 앞서가는 EU만의 규제 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은 한국 기업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Q 국내 기업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CSRD에 명시되는 ‘큰 그룹(Other large EU companies)’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해당 조건은 생각보다 작아 임직원 250명, 매출 4,000만 유로(약 540억 원), 총자산 2,000만 유로(약 270억 원) 이상 중 2개만 해당돼도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EU 진출 한국 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8년부터는 EU에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한국의 최상위 모기업들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현지 진출한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회사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인 것입니다. 그 대상도 엄격해서 그룹 연결 기준으로 EU 내 매출이 1억 5,000만 유로(약 2,000억 원) 이상이면, EU 내 매출 4,000만 유로(약 540억 원) 이상의 지점이나 현지법인 이 있으면 적용 대상입니다. 더구나 ESRS의 공시 요구사항은 가장 광범위하고 상세해 한국 기업들은 대응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ESRS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포괄하는 12개의 기준서가 82개의 공시요구 사항과 114개의 핵심성과지표(KPIs,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시 체계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예상됩니다.



Q 국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기업은 두 가지의 대응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먼저, 각 지역별 공시규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EU 현지 법인은 ESRS 기준, 한국 모회사는 연결기준으로 아마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기준을 따르다가, 2028년부터 한국 모회사는 ESRS 기준에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국제회계 기준(IFRS) 도입 이전에 글로벌 기업들을 힘들게 한 국가별 다중회계보고(Multi-GAAP reporting) 상황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은, 본사 및 그룹 차원에서 ESRS를 충족하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ISSB 기준도 동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ISSB도 ESRS를 참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EU에서는 최상위 모회사가 CSRD를 충족하는 전체 그룹 연결 기준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한다면 EU 내 각 자회사들의 CSRD 공시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공시 규제를 이중 관리하는 것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게는 강력한 인센티브로써, EU 역외기업들에게도 CSRD를 확산하려는 매우 정교한 정책 세팅입니다.



Q 기업과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U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순간 EU 역외기업들에게는 CSRD가 강력한 규제나 장벽으로 작동되거나, 새로운 규제와 압박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것입니다. 단순히 ESRS에 따른 정보공시 부담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한 제조경쟁력이 중요 원천인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환경·사회적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해외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만의 숙제로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지원과 정부의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 김진규 전무

Tel. 02-2112-0223
E-mail. jinkwi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1월 30일 게재된 내일신문 '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 남의 일 아니다'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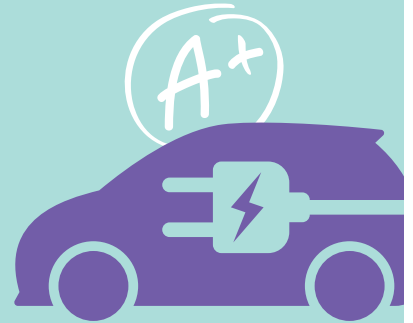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그간 진행해온 '맛있는 경제'가 '알쓸사전-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시사, 경제 용어 및 신조어를 두 개 선정해서 살펴보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과 EU가 새롭게 합의한 브렉시트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전기차 등급제에 대해 알아본다.

원저 프레임워크

영국과 EU,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했다!

영국과 EU(유럽연합)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협약에 합의했어요.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와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원저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한 '원저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어요.**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같은 생활권이라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시장에 남았는데, 이중적 지위 탓에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물품은 한 나라임에도 검역·통관을 거쳐야 했어요. 사실상 이 장벽을 없앤 것이라 보면 돼요! **협약에 따르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길이 북아일랜드행(초록줄)과 EU행(빨간줄)으로 나뉘고, 인증업체가 초록줄로 보내는 물품은 국내 간 이동으로 분류돼 검사를 하지 않아요. 또한 영국 정부가 승인한 의약품 등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요.**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은 영국 정부가 정한다고 해요.



전기차 등급제

전 세계 최초! 전기차 소비효율 등급제 도입

오는 12월부터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라 1~5등급의 기준을 매겨 표시하도록 한 **전기차 소비효율 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는 자동차 업계가 효율 높은 전기차를 개발하도록 촉진하려는 목적인데요, **전기차에 등급제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이 전기차의 전비와 주행거리, 충전 소요 시간, 예상 전기요금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차 전비를 등급으로 분류해 표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아직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오는 6월부터 출시되는 전기차 새 모델, 12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전비를 기준으로 분류됐는데, 내연기관에서 쓰이는 연비의 개념을 전기차에 적용한 것이 전비인데요,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1리터당 주행가능 거리로 책정했다면, 전기차의 전비는 1kWh당 주행가능 거리로 분류돼요. 1kWh당 주행가능 거리가 5.9km 이상이면 1등급, 3.4km 이하면 5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죠.**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은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1리터당 16km 이상의 주행가능 거리를 확보한 차량이라 볼 수 있어요.



Happy workplace



원문과 인터뷰

People First

생활 속 즐거움과 재미 찾기
'제2회 챔피언십'
대회추진위원을 만나다!

16

삼성인톡

초거대 AI 시대,
AI 플랫폼 어디까지 활용해봤니?

18

삼성동호회자랑

승부는 9회 말 2아웃부터!
끈기와 열정으로 하나된 야구 동호회

20

KPMG Story

Purpose를 향해 달려가는
삼성인의 롤모델은 누구?

22

이동규의 두줄칼럼

Back to the Basic (B2B)

24

Theme Interview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이벤트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Together Campaign'

26

心 Care

회복의 첫 단계, 신체적 회복의 핵심
마음이 어렵다면 몸부터

28

Samjong News

'Vision 2025' 실현 위해 법인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외

30



생활 속 즐거움과 재미 찾기 **‘제2회 챔피언십’** 대회추진위원을 만나다!

오는 5월 생활 속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찾아온다.
바로, 지난해 처음으로 열렸던 삼정KPMG 임직원들의 골프
대회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올 예정인 것! 올해는
얼마나 더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이번 호에서는 각 Function의 대회추진위원을 만나
대회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본다.

[대회추진위원]

Audit 김용훈 Manager
(yonghoonkim@kr.kpmg.com)
Tax 이민선 Manager
(minsunlee@kr.kpmg.com)
DA 정민하 S.Manager
(minhajung@kr.kpmg.com)
CS 함영은 S.Manager
(yhahm4@kr.kpmg.com)

우리는 대회추진위원입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회로 잘 준비할 것”

함영은: 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onsulting 부문을 대표해서 대회추진위원을 맡게 됐네요. 사실 작년에는 첫 대회인 만큼 기대 반, 걱정 반 속에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삼정인들의 성화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첫 대회를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고, 스스로도 많이 뿌듯했습니다!

정민하: 저 역시도 2년 연속 위원 자리를 맡게 되어 영광이에요. 사실, 저보다 골프에 조예가 깊으신 다른 분들께서 맡으셔야 할 자리인데, 골프에 대한 조예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난해 경험을 살려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용훈: 지난해 운이 좋게 본부 대표 선수로 챔피언십에 참가하며 마냥 대회를 즐겼는데, 올해는 Audit Function 대표로 대회추진위원이 되었어요. 직접 준비에 참여해보니, 지난해 얼마나 많은 부분까지 세심히 신경 쓰셔서 대회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처음 대회추진위원이 된 만큼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볼래요!

이민선: 저 역시도 매니저님처럼, 올해 Tax 부문을 대표하는 대회추진위원이 되었어요. 지난해 우리 본부가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 올린 덕분에 대회추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된 듯해요. 하하. 아직 대회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남은 기간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Only 스크린대회로 실시간 생중계! 니어 핀 챌린지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한가득

함영은: 올해 챔피언십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먼저 작년과 달리 예선부터 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스크린 골프장에서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준결승과 결승이 필드에서 이뤄져 실시간 중계가 힘들었죠. 하지만, 올해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결승전까지 진행되어, 삼정인 모두가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생중계로 즐길 수 있어요!

김용훈: 라이브 중계를 통해 대회 첫 시작부터 끝까지, 관람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변화인 듯해요. 그리고, 골프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니어 핀(Near Pin) 챌린지 이벤트를 비롯해, 대회 참가 선수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럭키 드로우, 라이브 퀴즈쇼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특히 우리 대회는 상품도 풍성하잖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민선: 그리고, 참가 선수단도 4명에서 6명으로 바뀐 점 아시나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에 선수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각 선수들의 일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하: 아참! 그리고 이번 대회는 챔피언십 초대 우승팀인 Tax에서 대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우승 본부 팀에서 준비하는 만큼 아마도 퀄리티가 작년보다 더욱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2023 챔피언십은 아마도 가 될 것! 봄의 시작 & 즐거운 이벤트 & 삼정인의 축제 & Together

김용훈: 우리 감사본부 대부분은 3월까지 Busy Season을 보내며, 힘든 겨울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곧 열릴 챔피언십은 바쁜 시즌이 모두 끝난 후 열리는 ‘봄의 시작’과도 같은 대회입니다. 구성원들의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줄 우리 법인만의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한 달 뒤 일정으로 열린 만큼 우리 감사본부에서 잘 준비해서 우승컵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정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민선: 우승컵을 쉽게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하. 우리 Tax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챔피언십이 삼정인들 마음에 ‘즐거운 이벤트’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 합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하기 쉽진 않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즐겨 주시면 좋겠네요.

정민하: 저 여기도 올해는 특별히 삼정인 모두가 진정으로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대회는 골프 선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응원하는 본부원들도 제한적이지 않았나 생각돼요. 올해는 우승이란 압박감보다는 선수들은 대회 출전하는 것에 기쁨을, 응원하는 본부원들은 대회 자체를 축제로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Enjoy your days!’

함영은: 저는 아무래도 이번 챔피언십이 우리 삼정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번에 대회를 참여하고 나니, 협업이라는 키워드가 딱 떠올랐거든요. 혼자만 잘하는 것보다, 선수 간의 합, 소통, 상호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완벽하게 이뤄질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선수가 아닌 본부원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가 ‘Together’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초거대 AI 시대, AI 플랫폼 어디까지 활용해봤니?

바야흐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이다. 몇 해 전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해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 챗봇이 등장했다. 연일 ‘챗(Chat)GPT’, ‘DALL·E2’ 등 다양한 AI 플랫폼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삼정사톡’에서는 삼정인들이 활용하는 AI 플랫폼을 살펴보고, 관련 꿀팁도 들어본다.



일상의비서! 구글 음성인식AI

구글 음성 인식 AI를 활용해 일상에서 비서처럼 이용하고 있어요. 음성으로 집안 가전제품을 자동 제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 플러그로 AI 스피커를 조명과 연동하여 음성으로 온, 오프를 할 수 있어, 자기 전 누워서 조명을 끄면 매우 편리해요!

정지원 S.Senior (ICE1)

광고 알고리즘을 '잘' 써먹기

구글-유튜브-쿠팡-인스타 등 우리가 자주 쓰는 플랫폼들 사이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찾기 매우 편리해요! 관심 있는 제품명이나 내용을 어떤 사이트든 한 번만 검색하면, 그 이후로 내가 들어가는 모든 플랫폼에서 비슷한 상품을 시가 추천해줍니다. 단 3초의 검색으로, 웹 서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일상생활 중 계속해서 그 상품을 서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찾지 못해서 웹 서핑을 더 필요로 할 때, 추가적인 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시가 알아서 광고를 띄워주고, 저는 3일 이내에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귀찮은 '광고'이지만, 광고의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비서가 된답니다!

민채원 직원 (Tax6)

노션 AI와 챗PDF로 업무 효율성 UP!

저는 노션과 챗PDF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션(Notion) AI는 업무에 필요한 내용 작성 및 요약 정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업무 내용을 작성할 때, 키워드만 적어도 문장 완성, 오타 교정, 문장 요약, 번역 등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일정을 입력하면 Notion AI가 해당 일정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일정 관리를 도와줍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관련 주제를 입력하면 AI가 연관 주제들을 결합한 아이디어들을 나열해 줍니다. 이외에도 미팅 로그를 입력하면 주요 내용 요약 및 Action Item을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챗PDF는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분석하여 내용을 요약해주고,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데요, 웹 상에 PDF 파일을 업로드 할 때는 KPMG 내부 문서나 프로젝트, 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업로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윤희상 Manager (Digital)



영어 학습으로 활용하는 챗GPT

요즘 가장 핫한 AI 플랫폼인 OpenAI사의 챗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Wall Street Journal, Economist 등 영어 유튜브 채널 등을 시청 후 생각을 정리하여 요약본을 포함한 소감문 형식으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작문을 마친 후 챗GPT에서 "Please revise the following essay to sound more natural as if it were written by a native English speaker" 등의 명령문을 사용하여 첨삭을 받고, 수정된 부분을 참고하며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제된 문장으로 첨삭이 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삼정인들도 해외 회사들과의 영문 이메일 등으로 소통 시 챗GPT를 활용한다면 훨씬 매끄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정은재 Analyst (Deal Advisory6)



챗GPT로 내 피부에 딱 맞는 화장품을!

피부에 맞는 화장품이나 기초제품을 찾을 때 챗GPT를 활용하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천해주더라고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 너무나 많은 상품이 있어,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때 참고하면 훨씬 이해도 쉽고 원하는 목적에 따라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장점도 있어서 아주 유용해요! 실제로 몰랐던 좋은 제품들을 추천해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대리 (B&F2)



BEI챗봇으로 효율적 업무 수행 가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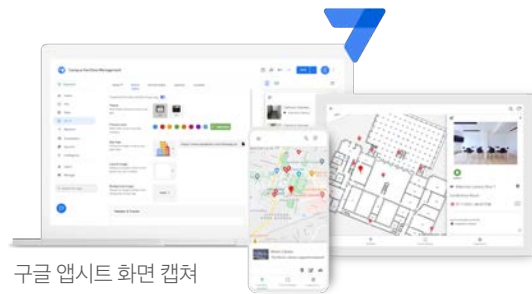
우리 법인의 라이트하우스에서 개발한 BEI챗봇(Chatbot)으로 서울외국환중개 등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경제 통계 조회 가능해서 너무 편리하고 유용하답니다! BEI챗봇은 감사인들의 외부감사 수행 절차의 자동화를 위해 고안된 애플리케이션으로, 휴폐업 여부 조회, 당좌거래 조회, 대상 회사의 KYC Risk 조회, 주요 환종에 대한 환율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장미경 Associate (B&F1)

구글 앱시트로 하는 자산관리

구글 앱시트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등으로부터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와 화면에 보여주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데이터 입/출력에 특화된 앱으로 굉장히 간편하고 빠른 장점이 있으며, 누구나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차트, 데시보드, 지도 등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며, 코딩 없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 앱시트를 통하여 나의 자산관리를 위한 강력한 가계부 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정인들도 구글 앱시트를 이용하여, 업무를 위한 간단한 앱을 개발하여 사용하면 업무 효율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인호 Manager (IA)



구글 앱시트 화면 캡처

우리 집 강아지의 스타일리스트 도글리!

도글리(DOGLLY) 강아지 옷을 판매하는 플랫폼인데, 이 사이트의 서비스는 사진을 기반으로 사이즈를 분석하는 시입니다. 플랫폼에 강아지 사진을 업로드 하고 견종, 나이, 몸무게 정보를 입력하면 어떤 옷을 고르든 강아지에게 맞는 사이즈를 시가 분석하여 보내드립니다! 우리 집 강아지 스타일리스트죠! 하하.

김영근 Associate (Ta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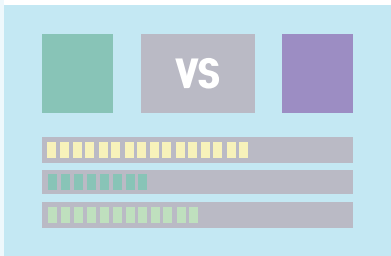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챗GPT, AskUp!

AskUp, 일명 아숙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챗GPT가 가진 장점을 고스란히 카카오톡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챗GPT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카오톡 채팅으로 편하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주로 여행 계획을 짜고, 여행을 가는 곳이 있을 때 해당 여행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손쉽게 물어보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요!

이경화 S.Consultant (Digital Tech)

©AskUp





승부는 9회 말 2아웃부터! 끈기와 열정으로 하나된 야구 동호회



마운드에서 힘껏 공을 던지고 있다



삼정KPMG는 구기 스포츠부터 댄스, 독서 등 다채로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삼정인들의 워라밸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매년 800만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하는 국민 스포츠인 야구를 즐기고 있는 삼정KPMG 야구 동호회를 만나본다.

지난 4월 1일 한국 프로야구가 드디어 막이 올랐다. 하지만, 이미 삼정KPMG의 야구 동호회는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3월부터 뜨겁게 마운드를 달구고 있었다. 3월부터 9월까지 열리는 사회인야구 리그인 송파구 리그에 참여하며 열띤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삼정KPMG 야구 동호회의 역사는 꽤나 깊다. 2011년 6월에 창단되어 올해로 12년 차에 접어들었고, 다양한 본부와 직급으로 구성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신경철 부대표(BD&Markets)가 단장을 맡고 있고, 박한뢰 S.Manager(Tax5)가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유영석 S.Analyst(Deal Advisory5)와 최재인 S.Analyst(Deal Advisory7)를 비롯해 동호회원들을 만나 야구 동호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2018년 Big4 야구대회
우승 기념 사진



야구 동호회 문의

Deal Advisory5 유영석 S.Analyst
010-5134-7728
youngseokyou@kr.kpmg.com



**레슨으로 실력 향상하며,
재미있게 야구 즐겨요!**

유영석: 저는 법인 입사 전부터 대학교 야구 동아리에 가입해 교내 리그 경기에 출전하며 꾸준히 사회인 야구 활동을 해왔는데요, 따라서 입사 후에도 야구를 즐길 기회를 찾다 보니 사내 동호회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된 것 같아요! 사내 동호회라서, 수직적이고 경직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분위기도 좋고 재미있게 야구할 수 있는 팀이라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요.

최재인: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동호회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초보자들이 야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슨을 지원 중이에요. 제가 송구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팀 레슨과 자체 연습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장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얻게 됐어요. 또한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제 볼 하나하나에 움직이는 팀원들을 보며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누군가가 이닝을 끝내주는 것이 아닌 제가 이닝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주인의식과 적극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 동호회 활동으로 참 제 삶과 태도 많이 바뀐 것 같네요. 하하.

**사회인 야구단, 팀 레슨,
그리고 Big4 야구대회까지!**

박한희: 우리 동호회는 세 가지 활동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3월부터 진행 중인 사회인 야구 리그 참여입니다. 우리 팀은 서울 지역 내 사회인 야구 리그에 가입해 주기적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송파구 야구 리그에 가입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팀이 속한 리그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총 10번의 리그 경기를 치른 후,

리그 순위에 따라 플레이오프를 진행해요. 많은 분들이 동호회 가입해서 우리가 리그 선두를 달리면 좋겠어요!

유영석: 리그가 끝난 휴식기에는 팀 레슨을 진행하고 있어요. 야구 경력이 있는 분들은 물론, 초보자들도 즐겁게 야구를 즐기고록 기본기부터 배울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끝으로, 매년 열리는 Big4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우리 야구단은 2018년 대회 우승, 2019년 준우승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2018년 대회 우승 당시 제가 처음으로 경기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중간 투수로 등판해 삼진을 잡은 것도 생각나고, 함께 최선을 다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어 기뻐요.

최재인: Big4 야구대회를 생각하니 저도 2019년 대회가 떠올라요. 준결승 중 1사만루 상황에서 병살로 경기를 마치고 팀원들과 하이 파이브 하며 기쁨을 만끽했어요. 다만, 결승전에서 아쉽게 졌지만요. 하하. 올해 열리게 될 대회에서는 우승의 기억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야구 즐기러 오세요!**

최재인: 개인적으로 야구는 누구에게나 실력을 입증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 생각해요. 에이스에게 공격 기회가 집중되는 다른 구기 운동과 달리 야구는 타순에 따라 동일한 타격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매 경기 팀원들이 타석에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누구에게나 경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돌아가면서 온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이 좋은 야구를 우리 동호회에 와서 함께 즐겨 보시기를 추천해요.

이상은: 무엇보다 많은 볼넷과 실책으로

늘어지는 경기가 아닌 타이트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많으니 참여하시면 즐거운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회인 야구 팀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삼성KPMG 야구단만큼 분위기 좋은 팀이 없다는 건데요, 우리 동호회 가입하시고, 야구도 즐기며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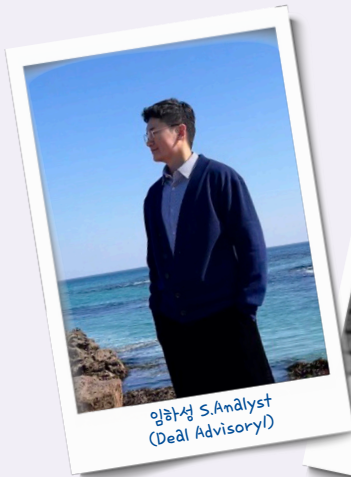
유영석: 그리고 우리 야구 동호회는 팀 내에서 청백전을 진행하며 정규 리그보다 편안하고, 부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원하는 포지션을 뛰면서 재미있게 즐기는 경기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정상적으로 리그 경기 진행이 가능한 만큼 부상 없이,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경기를 하시도록 팀 레슨과 자체 연습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구 실력도 향상시키고, 팀원 간 유대와 팀 분위기도 좋아져 더욱 즐거운 분위기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 야구 동호회는 레슨부터 자체 연습 과정을 통해 실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Purpose를 향해 달려가는 삼정인의 롤모델은 누구?

'KPMG Story'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Purpose, Value, Vision에 대한 삼정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려 한다. 그 첫 시작으로 삼정인을 성장으로 이끄는 Purpose, 즉 삼정인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삼정인들이 Purpose를 향해 달려가며, 닦고 싶어 하는 롤모델은 누구일까?



임하성 S.Analyst
(Deal Advisory)



장기려선생기념사업회
장기려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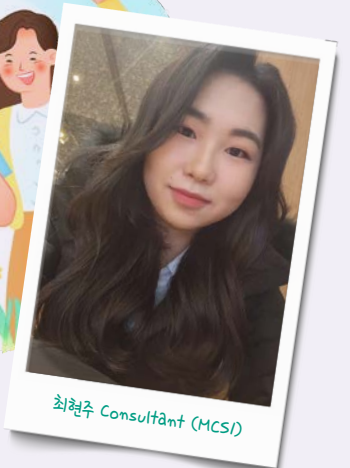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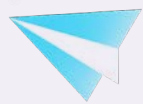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한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는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사회안전망 제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선물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기려 박사를 롤모델로 삼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항상 새로운 도전과 자기 계발을 하시는 아버지

저의 롤모델은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쁜 하루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실천하시는 분인데,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시는 모습이 제가 닦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계발이나 취미 생활을 게을리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출장 중에도 공부와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의 상황보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KPMG에 입사한 지 한 달 차가 되었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출근 전에는 시사 공부를,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최현주 Consultant (MCS)

파도에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바다!

제 롤모델은 바다입니다. 깊고 넓은 바다와 견주어 보면 사람은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사사로운 감정은 사실 별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에도 결국 고요함을 유지하는 바다처럼, 주변의 사건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의 나(스스로)'를 한 걸음 성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갖춰야 건강한 정신이 담길 테니, 건강을 비롯한 자기 관리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바다

김지원 S.Senior (IT Audit)



신수현 과장 (Tax5)

켈리 최 페이스북
켈리 최

켈리 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

요즘 제가 닮고 싶은 분은 성공한 사업가 '켈리 최'입니다. 최근 읽었던 '웰 씽킹'의 저자이기도 한 켈리 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닮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흠수저(?) 출신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첫 걸음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애썼던 노력들 그리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 에게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동기와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닮고 싶습니다. 롤 모델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성공한 사람들을 책을 통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서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의 꿈도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끈기와 노력으로 정상을 향해 달려온 다케다 유토!

제 롤모델은 웹툰 '더 복서'의 다케다 유토인데요, 복싱에 재능이 없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캐릭터입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연습 시간들을 견뎌내고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점을 닮고 싶습니다. 올해는 뭐든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진짜 성과는 하루 이틀 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상을 바라기보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나아가야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래야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케다 유토

배유경 Analyst (Deal Advisory6)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Back to the Basic (B2B)

조사에 의하면, 국내 직장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위는 바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바탕(質) 자체가 부실하다는 의미로서 본질적인 수준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엄숙한 말이다. 따라서 기본이 돼 있다는 건 상당한 내공을 지닌 경지다.

수만 자에 달하는 한자 중에서도 우리 인생의 뿌리를 뜻하는 글자는 바로 ‘본(本)’이다. 여기서 이 글자를 풀어보면 나무 목

(木)자가 씨를 품고 있는 모양이다. ‘씨(seed)’는 본질이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나쁘면 좋은 열매가 열리기는 틀린 법이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 나무 위로 올라가 말(末)자로 변한다. 그리고 열매는 땅에 떨어져 다시 씨앗이 된다. 여기서 ‘말(末)’이란 끝이란 의미보다는 마침내 다다르게 되는 종착역이나 최종 해결 방안을 의미한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본말전도(本末顛倒)’ 상황이 된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는 의미도 된다. 경영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Back to the Basic(B2B)'도 같은 맥락이다.

기본기에 미쳐라

“명선수는 명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스포츠 격언이다. 역사적으로 대단한 기록을 세웠던 운동팀을 이끈 감독들이 고백하는 비결은 하나같이 기본기에 충실히 하라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기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 스킴베클러(Bo Schembechler)는 21년간 승률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던 전설적인 미시간대 풋볼 감독이었다. 그는 평소에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최고의 팀을 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최고의 팀이란 유명한 선수가 많은 팀이 아니라,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선수가 많은 팀이었다. 그는 풋볼에서 가장 기본기인 블로킹과 태클만 제대로 터득한다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으며 언제나 화려하고 복잡한 전략 대신 단순한 원칙 안에서 코치했는데도 팀에게는 언제나 승리를 안겨주었다. 유럽축구 명문 구단인 맨유 퍼거슨 감독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늘 외쳐온 이유다.

사례: 레고의 혁신, “벽돌로 돌아가라(Back to the Brick)”

덴마크를 대표하는 장난감 업계의 거인 레고(LEGO)는 2000년대 초반, 응급실로 실려 갔다가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역사를 갖고 있다. 가족 경영을 고집해 오던 레고 크리스티안센 가문은 파산 위기에까지 몰리자, 맥킨지 출신인 30대 중반의 새파랗게 젊은 조르겐 빅 크누드스툼을 CEO로 파격 영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가정과 소매상을 직접 방문하면서 장난감에 대한 고객의 생각을 세세하게 조사했고, “벽돌로 돌아가라(Back to the Brick)”는 처방을 내렸다. ‘레고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창립 당시의 ‘놀이 철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경영진에게 해답을 준 것은 독일의 11세 소년이었다. ‘레고 매니아’이면서 스케이트보더인 이 소년에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고 물으니 “저기 있는 오래된 운동화다. 저 낡은 운동화는 제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스케이트보드를 잘 탄다는 증거이자 나만의 트로피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레고는 여기서 레고만이 가진 특성과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레고의 기본인 블록에 집중해서 오히려 크기를 더 줄이고 조립설명서를 상세하게 만들었다.



고객들로 하여금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고 주변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의 레고가 단순한 장난감 회사였다면, 현재는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위대한 경영학 선생인 피터 드러커는 “목표가 관리라면 목적은 리더십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너무나 빠른 말 같지만 비즈니스의 핵심은 바로 목적 (Why)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볼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이벤트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Together Campaign’

KPMG는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Inclusion & Diversity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삼정KPMG 역시 멤버 펌으로서 매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조직 내에서 다름을 존중받고 배려한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Together Campaign’을 펼쳤다. 익명으로 보내온 이들의 감사 메시지를 살펴보자.

“Together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온 감사 편지!

To. 서지희 부대표님(Q&RM)에게

삼정KPMG에서 뿐만 아니라 Big4 회계법인 중 최초의 여성 파트너이자, 여성 부대표님으로서 법인의 모든 여성 임직원에게 부대표님 자체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인의 문화를 잘 보여주신 롤모델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명예롭게 정년퇴직하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셔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인과 부대표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KNOW (KPMG Network of Women)를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잘 유지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o. 박소영 Associate님(ICE2)에게

상대적으로 남자가 많은 조직 구조이다 보니 아무래도 업무환경이나 문화가 적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스스럼없이 다가와 주고 상황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본인 외에 다른 여자 스태프들이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하고 배려해줘서 감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만큼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유연한 사고방식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To. 이영호 Director님(Tax6)에게

늘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시고 안부 확인하시는 이영호 Director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늘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닮고 싶네요.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로 본부 분위기를 화사하게 밝혀주세요~!

To. 노장섭 S.Manager님(MCS2)에게

내향적인 편이라 혼자 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팀 단위로 일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팀에 해가 가지 않도록 내향적인 성향을 숨겨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일'과 '삶'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To. Deal Advisory6본부의 1팀 전원에게

모름지기 술자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욱 즐거운 법이며, 특히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매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팀 화합을 도모하곤 합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아, 신입 시절에는 서로 인해 회식 분위기가 재미없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술자리에서 항상 저를 즐겁게 해주시고 가끔은 먼저 콜라를 주문해주시는 팀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회복의 첫 단계, 신체적 회복의 핵심 마음이 어렵다면 몸부터

몸을 방치해두고 마음만 챙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몸과 마음은 상호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펴보는 일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보다 직선적인 방식으로 몸부터 살펴보자. 이번 호에서는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해결법을 찾아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직종의 특성에 따라 호소하는 어려움의 내용이 달라진다. 특정 시기에 특히 더 바쁘고 긴 업무 시간, 높은 업무 강도를 갖는 직군의 경우, 해당 시기에 수면 및 식사의 질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력을 다잡는 문제를 떠나 일차적인 신체 기능이 일상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한창 일이 많을 때는 다들 일하느라 바빠 아플 시간도 없어 잘 안 아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짝찬 일정과 급박한 상황에서는 분명 몸이 건강하지는 않음에도 아프지도 않은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길 권한다. 각자 자신만의 몸과 마음 회복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들 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 몸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 영양 관리, 충분한 수면이 대표적인 몸 챙김 방법이다. 그렇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것일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꾸준히 신체 관리를 하고 신체 능력이 자산인 전문 운동인이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또, 성향상 운동 자체를 즐기지 않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기에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것이 건강한 방법'이라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마음챙김>, <늙는다는 착각>의 저자 허버트대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는 사무직 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연구를 시행했다. 하루 종일 몸을 많이 움직이는 육체노동자가 사무직 노동자보다 더 건강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두 집단 간의 건강 상태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랭어는 '활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활동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육체노동자에게 그들의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열량 소모와 효과를 알려줬더니, 육체노동자 집단의 건강 상태(혈압과 체중 감소)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똑같이 몸을 움직이더라도 별 의식 없이 움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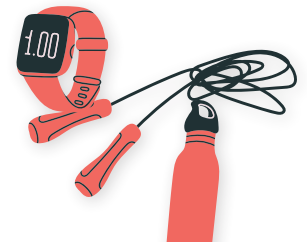
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100kcal 정도 소모되고 상체 근육에 힘을 쓰는 움직임을 하고 있군'이라는 자각이 운동 효과를 낳은 것이다.

상담실 안팎에서 뵈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운동을 등록했다'며 주 몇 회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신다.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주는 의미가 크고 운동만큼 좋은 명약도 없다. 그러나 만약 어떤 시작을 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면 굳이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필자가 상담실에서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다. 오히려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움직임(대중교통을 타러 이동하는 걸음, 회사 내에서 층간 이동을 계단으로 하기 등)의 운동 효과를 의식하며 사소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요즘 운동 뭐 하세요?"의 운동 이름보다 신체적 활동 그 자체에 집중해 보자.

더불어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할수록 좋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해결이 빠른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화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공허해서, 외로워서 자극적인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 평일에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 휴일에 과도하게 자는 것도 진짜 내 몸이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기 전에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보다는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을 선택하자.

심리학 및 건강의료학에서 '소마틱스(somatics, 신체)'분야가 있다. 신체 반

응과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 감각을 통해 나의 몸을 자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컫는 몸은 SNS나 짧은 영상들에서 단편적으로 과시하듯 보여지는 '몸매'와 다르다. 미용 체형을 위해서는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이 나올 수 있겠으나, 나의 몸을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낫다. 단순 몸매가 아닌 마음과 연결된 몸을 진정한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감, 자기수용 감각, 평형 감각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내 신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몸 건강의 핵심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몸에게 가혹하게 대하며 한계를 시험해 보지 말고 지금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Vision 2025’ 실현 위해 법인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삼정KPMG가 4월 1일 자로 법인 조직 개편 및 파트너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Vision 2025’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Function Head와 본부장, 파트너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행됐다.

먼저,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Q&RM-DPP 기능을 총괄하는 Head of DPP (Audit RMP 겸직)에 조원덕 부대표가 임명됐다. 새로운 B&F1 본부장 및 B&F Industry Leader에 권영민 부대표가, B&F3 본부장에는 김진귀 전무가 임명됐다.

아울러 신규 감사 고객 수입에 따른 고품질 감사 서비스 제공을 위

해 ICE1본부 한상현 전무와 노정환 상무가 ICE2본부로 이동 발령됐고, Q&RM-DPP 허세봉 부대표는 IM4본부로 이동 발령됐다. Deal Advisory7본부가 Due Diligence팀을 신설한 가운데, Deal Advisory3본부 한윤성 상무가 Deal Advisory7본부로 이동 발령됐다. 또한 Deal Advisory1본부의 Valuation팀 보강을 위해 Deal Advisory7본부 임창희 상무가 Deal Advisory1본부로 이동 발령됐다. 임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L&D 센터장으로는 E&I 파트너인 장영내 부대표가 겸직 임명됐고, L&D 실무 담당 파트너로는 신동명 상무가 겸직 임명됐다.

신임 리더 및 본부장



Head of DPP
(Audit RMP 겸직)
조원덕 부대표



B&F1 본부장 및
B&F Industry Leader
권영민 부대표



B&F3
본부장
김진귀 전무



L&D
센터장
장영내 부대표

여성 회계사 1세대 서지희 부대표, 정년 퇴임식 가져



지난 3월 31일 삼정KPMG Q&RM 서지희 부대표가 36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다. 서지희 부대표는 1986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여성 회계사 1세대로 삼정KPMG에 입사하여 30년간 쌓아온 회계 및 감사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2003년 Big4 회계법인 최초로 여성 임원으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 2021년 업계 첫 여성 부대표로 승진하며 여성 회계사들의 롤모델로 꼽혀왔다. 아울러, 국내 기업 여성 임원들의 네트워크인 사단법인 ‘위민 인 이노베이션(WIN)’의 제3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삼정KPMG 본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는 그동안 삼정KPMG의 품질과 인재육성,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수여됐다.

국내 기업 대상으로 열린 '해외 진출 M&A 세미나' 성료



삼정KPMG가 지난 3월 22일 역삼동 본사에서 국내 기업 대상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 세미나: 지금이 기회다'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 크로스보더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내외 M&A 동향과 함께 KPMG가 보유한 주요 딜 리스트(Deal List)를 소개했다. 이어, 크로스보더 M&A 시 고려해야 할 주요 Tax 이슈를 안내하고, KPMG가 수행한 매각·인수·JV 관련 크로스보더 M&A 사례를 전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 대해 1대1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삼정KPMG의 현지 전문가와 함

께 참석 기업들의 크로스보더 M&A 계획 및 고민들을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삼정KPMG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등 성공적인 M&A를 돕기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의 크로스보더 M&A팀을 구성하고 있다. 삼정KPMG 크로스보더 M&A팀은 김진만 부대표와 KPMG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리더인 박성원 전무를 필두로 전 세계 2,500명 이상의 KPMG 크로스보더 전문가들과 협력해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Contact: Deal Advisory3본부 심재길 상무 jsim@kr.kpmg.com

INTRODUCE -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Tax1 설인수 상무 영입



경력

- 김·장법률사무소 (2019~2023년)
- 법무법인율촌 (2010~2019년)
- 삼일회계법인 (2006~2010년)

삼정KPMG가 3월 2일자로 Tax1본부에 설인수 상무를 영입했다. 설인수 상무는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요 대기업, 외투기업, 중소기업 및 사주 일가 대상으로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해왔다. 법인과 개인의 국내 세무 문제에 대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조세 전문가로서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부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설인수 상무는 "최근 세무 분야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삼정 KPMG Tax본부에 합류할 기회를 얻어 매우 설레고 기쁘다"라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고객이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국내 세무 자문 서비스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NK BIZ FORUM

NK비즈포럼 제8기 모집

‘NK비즈포럼’에 초대합니다!

‘NK비즈포럼’은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삼성KPMG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남북경협 최고경영자과정입니다.

삼성KPMG·중앙일보가 북한·경제 전문가는 물론 대북사업을 경험한 기업인, 북한 고위층 출신 인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현실 정책과 시장,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평화경제 시대, NK비즈포럼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3년 4월 하순 개강 예정
매주 목요일 저녁 7~10시

장소

더 플라자호텔 or 롯데호텔서울

선발 대상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주요 기관·단체장
대북 진출, 남북경협 등 북한·통일 이슈에 관심 있는 분



• NK비즈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문의

nkbizforum.com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화	02-2112-2743
이메일	seungpyohong@kr.kpmg.com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